

경기둔화 우려속 13거래일째 상승 '코스피 미스터리'

불황 이미 증시에 반영... IT·車 유망 2200선 안착

리서치센터장 증시전망

2분기 경기반등 기대 '상승렐리' 외국인 이달 코스피서 2.4조 매수 EU경기지표·브렉시트 등 지켜봐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코스피지수가 나홀로 질주 중이다. 지난 3월 29일 이후 13거래일째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가 산출된 1980년 1월 4일 이후 13거래일 연속 상승은 이번이 두번째로 역대 최장이다.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은 198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3거래일이었다. 4월 들어서만 주가는 5.04% 올랐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렐리 배경에 대해 2분기 중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제 불안에 대한 약재는 1분기 증시에 이미 반영됐다는 의미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5.75포인트(0.26%) 상승한 2248.63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가 증가 기준 2248포인트를 넘은 건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6개월 만이다.

◆ 2분기 코스피 "2200선 안착"

메트로신문이 국내 주요 리서치센터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증시전망



증권사	미래에셋대우 구용욱 리서치 센터장	이베스트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키움증권 박희정 리서치 센터장	하나금융투자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
상승이유	하락폭을 만회하는 것	경기 개선 기대감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경기 개선 기대감
2분기코스피 전망	(전망 안함)	2300	2200	2100~2300
리스크요인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지표	미중 무역분쟁	경기 개선 속도	미중 무역분쟁, EU 경기 지표
기회요인	반도체 실적 반등	경기 바닥 확인	경기 바닥 확인, 하반기 실적 기대	5G, 4차산업 등 성장, 경기 연속 회복
추천업종	실적 상향조정되는 종목	IT·자동차 등 대형주	반도체·자동차	IT·경기 관련 대형주

장을 대상으로 2분기 증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지수는 22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정보 기술(IT), 자동차 등 대형주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 예상된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고 있다"면서 "2분기 중 코스피는 22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승렐리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분석하며 "먼저 이익 하강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같은 IT기업과 자동차업종의 이익 하락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

수를 볼 때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OECD가 발표한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21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는 또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센터장은 특히 "통화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며 주가 상승 기대감을 전했다.

실제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 힘입어 외국인인 매수세는 4월 이후 강해지고 있다. 4월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시장에서만 외국인인 총 2조3967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반면 주가 상승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상승은 그동안 많이 빠진 것을 만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월 2600선을 넘은 후 꾸준히 하락과 반등을 거듭해오고 있다.

경계해야 할 이벤트도 남아있다. 특히 유럽연합(EU) 경제의 방향성이 핵심이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EU의 경기 하강리스크가 커지면 전 세계 경제도 흔들릴 것"이라며 "EU 경기지표를 비롯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등을 유심히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미국이 무역분쟁 화살을 EU로 겨눌 수도 있다"면서 "특히 EU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독일과 마찰이 생기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형주 중 실적 개선株 추천

전문가들은 올해 정보기술(IT) 등 대형주가 좋을 것으로 봤다.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자동차 업종의 반등 기대감도 있다.

조 센터장은 "국내 증시는 5G, 4차산업 성장 등이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IT 관련 대형주 중 실적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종목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반도체 업황이 반등 기대감에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센터장은 "최근 반도체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이번 고비만 넘으면 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저효과에 따라 자동차 업종이 좋고, 밸류에이션(가치) 측면에서 보면 증권과 은행업종도 투자 환경이 좋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경기가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바닥을 지나고 있다"면서 "IT, 자동차 등 대형주를 추천한다"고 했다. /손업진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24일 100세시대 아카데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4월 강좌를 오는 24일과 25일에 실시한다. 24일에는 SET EC 컨벤션 1홀(학여울역 1번 출구)에서, 25일에는 NH투자증권본사아트홀(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각각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달 '100세시대 아카데미' 강좌의 주제는 '글로벌 주식투자 전략'과 '2분기 금융상품 시장전망 및 포커스(Focus)상품'이다. /손업진 기자



유안타증권

ELS 등 4종 200억 공모

유안타증권은 조기상환형 ELS 등 파생결합상품 4종을 총 2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ELB 제159호는 KOSPI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개월의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10% 이상인 경우 연 1.86%의 수익과 원금이 지급되며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연 1.85%의 수익과 원금이 지급된다. /김유진 기자

'41년 전통 게임업체' 반기 매출 618억, 영업이익률 52%

IPO간담회

SNK(에스엔케이)

17~18일 수요예측, 23~24일 청약 NH투자증권 내달 7일 코스닥상장



전세환 SNK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SNK

글로벌 게임업체 SNK(에스엔케이)가 오는 5월 코스닥 상장에 제도전한다. 지난해 12월 수요예측 부진으로 공모를 철회한 지 약 3개월만이다.

SNK는 이번 상장을 통해 모은 공모자금으로 게임 IP(지적재산권)를 보유한 글로벌 업체와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계획이다.

SNK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7~18일 수요예측을 거쳐 23~24일에 청약

을 실시하고 오는 5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 업무를 맡고 미래에셋대우가 공동주관사로 참여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3만800원~4만400원선이다. 총 420만주를 공모한다. 각

기관투자자 366만주, 일반투자자 84만주가 배정된다. 공모예정금액은 1294억원~1697억원이며 상장 후 시가 총액은 6493억~8509억원으로 추산된다.

SNK는 41년된 일본에 본사를 둔 게임업체로 IP 라이선싱 사업과 게임 개발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더킹오브파이터즈, 사무라이스피리츠, 메탈슬러그 등 1990년대 오락실에서 흥행한 아케이드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다. SNK의 IP를 이용해 개발된 게임은 텐센트, 넷마블 등 해외 대표 퍼블리셔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

SNK는 지난해 반기(2018년8월1일부터 2019년1월31일까지) 기준으로 매출액 618억원, 영업이익 320억원, 순이익 246억원을 기록했다.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IP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영위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이 52%

에 달한다. IP 라이선싱 사업은 총 매출의 약 62%를 차지한다. 개발비, 마케팅비 등의 비용이 드는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에 중점을 둔 타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는 분석이다.

전세환 SNK 대표는 "SNK는 IP 라이선싱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어 다른 게임업체와 차별성을 갖는다"며 "앞으로 선보일 게임이 이전보다 2.8배 많아 화려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NK는 이번 자금 공모를 통해 IP의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M&A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IP계약 금액이 계속 상승하는 동시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SNK는 약 200여개의 IP를 보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SK건설, 대전·부산서 재개발사업 수주

SK건설은 대전 중앙1구역과 부산 부곡2구역 등 2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따내며 올해 재개발사업 수주의 포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SK건설이 지난 13일 수주한 대전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9-264번지 일대에 지하2층~지상28층, 6개 동, 618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1년 7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1월 입주예정이다. SK건설의 총 도급액은 1146억원이다.

중앙1구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지로, 대전역 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한 축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대전로와 중앙로를 통해 지역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대전역 동광장에 인접해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다.

김수환 SK건설 도정영업2실장은 "대

전역과 인접한 중앙1구역은 뛰어난 입지 조건과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미래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특화설계와 시공능력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수주한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79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2층, 13개 동, 2348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SK건설은 GS건설,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SK건설의 도급액은 1955억원 규모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대전 중앙1구역 조감도. /SK건설